

충성대신보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제 202호

- 02 학교소식 충성대 드론교육센터 개원
- 04 학교소식 하계군사훈련 포토스케치
- 06 생도광장 생도대 대나무숲
- 07 생도광장 공수훈련 소감 및 여담
- 08 생도광장 60기들의 첫 하계군사훈련
- 11 오피니언 사회 저명인사 칼럼
- 12 교양 2023 트렌드 노트
- 14 동문소식 동문(同門)의 소리
- 16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배현국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오찬을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202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송동익, 김영우, 설영환, 상병 윤춘기, 일병 임은혁, 오세준, 채호준

충성대 드론교육센터 개원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에 발맞춰 '드론봇 전투체계' 전문인재 양성 영천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험식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학교는 7월 25일 학교장(소장 배현국)과 최기분 영천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사관생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성대 드론교육센터' 개원식을 실시하였다.



▲ 드론교육센터 개원식에서 드론 운용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학교 내 미래 육군 전투력의 중추가 될 드론봇 전투체계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사업경과 보고, ▶기관장 축사 ▶기념 테이프 커팅식 ▶드론교육센터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드론 레이싱 시범과 영천시민 체험 학습 과정 시연 등을 선보였다. 학교와 영천시가 협업하



▲ 배현국 학교장(왼쪽 3번째), 최기분 영천시장(오른쪽 3번째)과 관계자들이 드론교육센터 개원식에서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여 설립한 충성대 드론교육센터는 전체 면적 약 13,000㎡ 부지에 비행실습 교육장 2개와 강의실, 비행통제실, 교육대기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충성대 드론교육센터는 육군이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를 고려하여 드론의 기술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하반기부터 사관생도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영천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드론 체험식 강좌를 올해 3개 기수로 편성하여 기본 이론과 드론 조립,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모의 비행, 기초 비행실습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2024년부터는 연중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령 이상민

육군3사관학교 · 포스코스틸리온 MOU 체결

공동 홍보를 비롯한 양기관의 상호 발전, 협력 관계구축을 위한 노력



▲ 학교장(소장 배현국)과 포스코스틸리온 엄기용 경영지원실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학교는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스틸리온(대표 윤양수)과 공동 홍보를 비롯하여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력 부족·지방소멸 등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수 인재

Pool 공유, 사관생도들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포스코스틸리온은 자사의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트강판인 포스아트(PosART)로 만든 특별한 아트월을 교내 2중용관 아너홀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진행했다. 사관생도의 모습을 표현한 아트월은 생도들뿐만 아니라 학교를 찾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 꾸며져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장(소장 배현국)은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글로벌 표면처리 전문기업인 포스코스틸리온과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홍보를 비롯해 생도들과의 인력 교류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관 길진규



▲ 포스아트 제막식을 기념한 생도들과의 기념촬영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우수상 수상 쾌거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 인식, 외교교섭 과정 간접 체험



▲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수상한 상을 들고 생도들과 지도교수 기념촬영

지난 7월 4~7일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제28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 생도 6개 팀(16명이 참여해 2개 팀이 각각 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 광주관광재단,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28개 대학, 25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UN의 역할과 외교교섭의 과정을 간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의 의제는 '기후변화와 국제평화안보',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역할' 등 3가지로 진행되

었다. 그 결과,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참여한 정치외교학과 류다은, 최수빈(59기, 4학년) 생도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기후변화와 국제 평화안보'라는 주제에서는 영어학과 이승준, 오상석(59기, 4학년) 생도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참가팀을 지도한 윤희철 소령(정치외교학과교장)은 "생도들이 국제기구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아가는 배움의 장이 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하는데 소중한 경험을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61기 정시 / 62기 예비생도 선발



생도선발 3차 시험(심층 면접) 현장

학교는 지난 6월 16일, 1차 선발 발표에 이어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8주간에 걸쳐 2024년에 입교할 61기 정시생도와 2025년에 입교할 62기 예비생도를 선발했다.

총 3차로 구성된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 [대학 성적+수능성적 또는 대학성적+고교내신], 2차 선발고사[영어, 간부 선발 도구를 활용한 지적능력 평

가, 3차 적성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는 인성 및 품성과 군인자질이 우수한 인원,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성을 보유한 인원, 기초체력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의 역량을 집중했다. 최종합격자는 61기 정시생도 10월 27일, 62기 예비생도 10월 13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관 길진규

정치외교학과 이강경 중령,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정치외교학과이강경 중령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과 이강경 중령(교수)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기간 : 2023년 6월~2025년 5월, 수주금액: 4,000만 원)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진연구 인력의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강경 중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연구: 우크라이나의 항전요인과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요인을 분석하여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주무관 박원형

충성대연구소 AI/빅데이터 연구실 학술세미나 개최



청운관 이무표실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모습

충성대연구소 AI/빅데이터 연구실은 지난 8월 16일, 청운관 이무표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 개념을 이해하고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공학적 도구, 기술과 지향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품질경영 분야 빅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인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강대국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주제 발표 이후 국방시스템과학과 손창호 중령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무관 여주미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한생도들의구조물제작 모습

지난 7월 21일,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등이 주최한 2023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한 건설공학과 59기 생도들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건설공학과 윤정원 중위(지도교수)를 비롯한 이우석(팀장), 전대건, 최민구, 한가연 생도로 구성된 '보라! KAAY!' 팀은 구조물의 강성을 높여 붕괴를 방지하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종이 댐퍼를 설계하여 구조물의 내진성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구조물의 붕괴 메커니즘을 고려한 내진설계' 를 주제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1단계 심사를 거쳐 24개 팀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선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어진 시간 내 구조물 제작 가능 여부와 지진 안전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주무관 길진규

미국 밴플리트(Van Fleet) 재단 초빙강연

지난 7월 21일 최무선실에서 생도들을 대상으로 밴 플리트 재단의 이사장인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Joseph McChristian Jr.) 예비역 대령을 초청하여 초빙강연을 가졌다.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 예비역 대령은 6.25 전쟁 당시 주한 미8군 및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밴 플리트 장군의 외손자이다.

조셉 맥크리스천 예비역 대령은 General Van Fleet's Legacy: "WILL TO WI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사관생도들이 승리를 위한 의지를 이어받아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가 꿈꿔온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무관 길진규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 예비역대령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무더위속 담금질 '하계군사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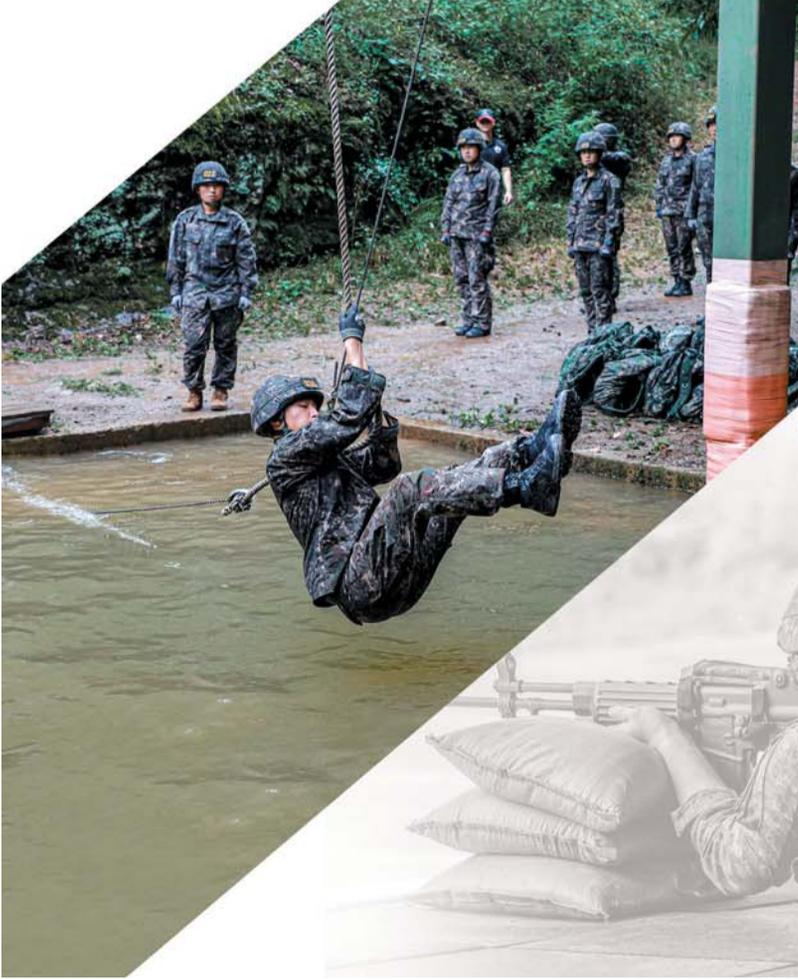
밤낮없이 뚝뚝 찢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진 지난 7월 17일부터 사관생도들은 7주간의 하계군사훈련에 전격 돌입하였다.

하계군사훈련은 매년 7~8월 생도들이 장차 군사전문가로서의 기본소양과 기본전투기술, 전투지휘능력, 교육훈련 지도능력을 갖춘 정예장교로 성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행동화 위주의 강한 군사훈련 기상을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시간 조정, 안전이 보장된 훈련 등 훈련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 준비 및 지속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60기 3학년 생도들은 행동화실습 위주의 기본전투기술 숙달을 목표로, 59기 4학년 생도들은 소대전투기술 체득을 목표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주무관 길진규



“강인한 체력과
필승의 정신전력 연마”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내용입니다.

선택적 약자

매일 19시가 되면 충용연병장에 땀겨울 평균 4분대를 5km 이상 유지하며 뛰는 남녀 생도들의 레이스가 시작된다. 그들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기도 하고,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통제형 땀겨울이 시작되면 그들은 시름시름 앓는 약자가 되어버린다.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리는 이유로 1오에 서 뛰기도 하고 여생도라는 이유로 1오에서 뛰기도 한다. 그들의 페이스에 맞추어 거의 6분대 페이스로 뛰며 뒤에 오는 인원들은 처지는 속도감에 무릎이 아프고, 호흡도 가빠진다.

완주할 때 쯤이면 울상을 지으면서까지 힘들어한다. 어제 트랙을 뛰던 그들은 이미 없다. 그리고 그날 저녁 충용연 병장에서는 그들의 무대가 다시 시작된다. 어쩌면 그들은 누군가의 뒤에서 뛰는 게 절대적으로 싫은 '선택적 약자'가 아닐까?

숨서! 숨!

하계군사훈련 기간 그때 우리는 선배 생도들과 마주 보고 살지 않고 아주 조금(?) 떨어져 살았다. 같이 있지 않으면 더 생활이 편하냐고? 그럴리가! 오히려 마주 보고 살 때보다 우리 생활관에 더 자주 오래 머물다 가셨다.

관물대 및 생활관의 청소상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태도까지 지도요소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다. 그 탓에 여기저기 각 소대본부에서 지도를 받아야만 했다. 닭가슴살 캔이 굴러다니는 선배들의 생활관에 둘러싸여서 꼭 듣는 단골멘트가 있었다.

“작년이 있으면 너넨 숨도 못 쉬고 다녔어. 우린 진짜 살살하는 거야.”

58기와 59기는 하계군사훈련이 시작되고 건물이 분리되어 살았는데 무엇이 59기들의 숨을 틀어막고 못 쉬게 한 것일까?

요런하케 나를 깨우던 기상나팔 소리를 뒤로하고 아침 점호에 나선다. 졸린 눈을 어떻게든 떠보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나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더운 여름 날씨의 아침 점호는 아직도 적응하기 힘들고 발걸음이 무겁다.

최근에 아침 점호가 싫은 이유가 하나더 생겼다. 도수체조 후 15초간 실시하는 '웃음체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웃음체조에는 웃음이 없다.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15초간 웃음체조 실시' 라는 구령에 모두가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억지웃음을 짓는다.

군조직의 생명은 상명하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도 일단 웃자.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웃음 체조 준비! 악!

너희들 중 누구든지 죄 없는 자만

59기의 공수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체력기준 미달과 건강 이상의 사유로 복귀하는 생도들이 생겨났다.

A생도(60기) : 돌아오면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닐까? 많이 창피하겠는걸...

B생도(60기) : 우리한테 체력으로 뭐라고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시작된 하계군사훈련 체력측정!

A생도(60기) : 팔굽혀펴기 센서가 이상해서 80개 했는데 56개밖에 안 찍혔어. 너는?

B생도(60기) : 난 윗몸일으키기 15개 정도가 찍혀서 3급 나왔어...

본인들이 정한 자격의 기준도 넘기지 못한채, 고생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사관생도의 자격이 있을까? 또 내년엔 본인이 돌아왔을 때 후배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때도 자격을 논할 수 있을까?

예도 봉



59기가 훈련으로 생도대를 비우고, 60기만 존재하는 저녁 점호가 시작되면 편하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돈다.

임시소대장 생도들과 지휘근무생도들이 점호 간 생활관 순찰을 돌며 미비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중 저녁 점호만 시작되면 기파생도로 변하는 동기들이 다소 식별된다.

손이 잘 닿지 않은 곳을 백색 수갑으로 쓸고는 벌점을 부여한다든지, 당사자가 없는 관물대를 마구잡이로 뒤지며 지저분하다 한다든지, 생활지도 간에 잘 열지 않는 속옷 칸을 맘대로 열어서 보는 민행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저녁 점호 때 잠간예도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뽕이 차오르는데 과연 내년에 견장을 달게 된다면 이들은 얼마만큼의 뽕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일과는 지속되었다. 더러워진 전투복을 세탁하고 빨래가 다 된 전투복을 가져오는데, 이마저도 주기가 안 된 전투복이 많아 각 층 중앙에 모아놓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그렇기에 누구는 다른 교육생의 전투복 바지 혹은 상의를 입으며 훈련에 임하기도 했다.

교육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것은 바로 청소였다. 지친 상태에서 청소까지 신경 쓰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고, 생활관별 청소상태 마춤으로 몇 번이고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힘든 일과 중에도 교육생들이 끝까지 버텨던 것은 공수 수료를 위한 목표와 위문이었다. 사실 위문이 교육생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아이스크림, 햄버거, 서브웨이 등의 위문으로 들어온 간식들은 교육생들의 활력소였고, 이때만큼은 행복의 시간이었다.

1, 2주 차보다는 3주 차가 더 힘들었다. 1~2주차의 훈련에 비해 신약복에 주 낙하산, 하네스, 예비낙하산을 전부 착용하고 대기하는 것만으로 탈진 직전까지 갈 만큼 몇 배는 더 힘들었다. 하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곳이 공수교육대가 아니던가?

3주 차에 힘들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시간 준수였다. 5~6분 거리를 매번 뛰어서 식당에 도착하면 정작 밥은 먹지 못하고 우유만 마시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 준수의 이유로 다음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훈련에는 적응하고 있었지만, 제때 밥을 먹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지금도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강하의 날이 다가왔다. 모든 교육생의 뛰는 방식이 약간은 달랐지만, 모든 인원이 강하를 무사히 완료했으며,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에 공수기본 869기는 가슴에 패치를 달고 마지막 구호를 외친다.

'세계 최강, 대체 불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아자, 아자, 아자!'

세계 최강, 대체 불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아자, 아자, 아자!

59기 국장생도 오찬을

“공수기본 869기!” “예! 869기!” “첫 번째, 두 번째 호루라기 생략. 세 번째 호루라기를 불게 되면 각 조는 단상 앞에 위치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호루라기 소리에 869기는 과성을 지르며 단상 앞에 위치한다. 교육 시작하기 전 교관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즉각 반응해야 PT를 받지 않는다.

땀에 젖은 교육생들은 땀을 새도 없이 교육에 집중한다. 눈에 들어가는 땀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교육생들이 많았고, 살은 타들어 가지만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버텼다.

파워에이드, 게토레이 등 음료를 하루에 몇 개씩 먹는지 모를 정도로 여름 공수의 날씨는 가혹했다. 쉬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마저도 모자라다고 느껴 탈진하는 교육생들도 많았다.

무거운 하네스는 불편했고, 예비낙하산은 언제나 파지하고 있어야 했기에 쉬는 시간에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교육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바로 '나는 공수교육생이다. 정신을 차리자'를 외치며 PT를 받아야 했기에 집중력을 유지한 가운데 훈련에 임했다.



60기들의 첫 하계군사훈련

하계휴가를 마치고 우리는 본격적인 하계군사훈련에 들어갔다. 특히, 60기 생도들은 충성기초군사훈련 이후 첫 하계군사훈련이었기에 7주간 진행할 군사훈련에 기대와 긴장을 보였다. 중대마다 훈련 일정이 상이했기에 주차 별로 다른 훈련을 진행했는데, 생도들이 군사적 지식을 쌓기 위해 어떤 훈련들을 진행했는지 알아보자.

60기기자생도 이재 원



전투부상자 처치

전투부상자의 현장 처치가 가능한 부상과 응급조치 그리고 후송을 의미한다. 훈련 간 사용한 더미의 무게가 무거워 당황했으나, 배운 방법을 활용하여 실습을 무사히 이어 나갔다. 전투부상자처치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부상자를 조치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었다.

수류탄

실습 전 선행된 이론 수업에선 수류탄을 던지는 방법 및 수류탄의 종류, 전술에 대해서 배웠으며 이후 자세를 반복 숙달하였다. 수류탄을 던지다 보니 어느새 현장은 폭약냄새와 하얀연기는 표적을 가렸고, 표적이 가려진 상태지만 생도들은 집중하여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투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편제장비

생도들은 K-15 한국형 기관총 등의 편제 장비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으며 편제장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전장의 무기체계는 진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편제장비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접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인화기

개인화기 훈련은 조교들의 시범 사격으로 시작하였다. "이걸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우려하며 사격을 어려워하던 생도들도 훈련을 진행하면서 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틀간 훈련을 진행하며 생도들은 임관종합평가 기준을 넘기며 사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생도들의 자신감이 표적을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각개전투

이번에 진행된 각개전투 훈련은 웨리어플랫폼과 국방혁신 4.0에 따라 변화되는 육군의 방향성을 따라가기 위해 건물 지역 전투 기술을 이용하여 실내에서 진행하였다. 생도들은 교관님께 배운 원수 신호를 활용해 조원들의 원수 신호를 만들어서 훈련을 진행하며 건물 지역 침투 작전을 몸으로 익혔다.

독도법

독도법이란 '독도(鐵道)'라는 뜻 그대로 길을 읽는 법을 뜻한다. 지도를 보며 좌표를 찾거나 나침반을 이용하여 어떤 위치를 찾는 방법을 배웠다. 처음은 쉽지 않았지만, 반복숙달을 통해 생도들은 감을 익힐 수 있었다.

경계훈련

적의 공격 위협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취하는 제반 근무 활동인 경계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맞게 감시 및 수하방법을 배우고 실습을 진행하며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생방

핵이 사용된 실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자세를 비롯해 보호의를 제한 시간 안에 입어야 하는 실습, 실제 가스실에 들어가 정화통을 갈아 끼우고 수통과 K-5 방독면을 연결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당연히 생도들은 처음 접해보는 가스에 눈물범벅이 되었으며, 방독면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생생했던 유격훈련의 기억

60기 기자생도 이 주형

유격 훈련이란 적지나 전열 밖에서 속한 순간의 형편에 따라 적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익히는 훈련을 말한다. 즉, 게릴라전에 필요한 훈련인 것이다. 항간에선 이런 유격 훈련을 극기훈련이라 부르기도 하며, 실상 극기훈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생도들에겐 더 와닿을 것이다.

우리 60기 생도들도 나름의 무용담으로 기억될 유격 훈련을 다녀왔다. 가장 먼저 유격 훈련을 다녀온 1대대 생도들의 생생한 기억을 따라 가보자.

생도대에 전파된 일정에 따르면 유격 훈련은 8월 21일 1대대, 8월 28일 2대대 순으로 시작하여 한 대대당 1주일, 총 2주의 훈련이 편성되었다. 유격 훈련의 세부 일정은 훈련 시작 하루 전 유격장에 도착하여 숙영진 편성을 시작으로 입소식, 유격체조, 기초장애물, 유격 전술(철야), 침투 및 첩보 수집, 도피 및 탈출까지 총 6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유격이라 하면 유격 체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동기들과 유격 체조 어땠나요?

김순수(60기 1중대) : 유격 훈련을 하면서 체조가 부담스럽진 않았다. 체조 간 교관님이 강조하신 사항은 목소리였는데, 동기들이 지친 탓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핏대를 올리며 소리를 지르기보단 오히려 체조를 무한 반복으로 진행했다.

이상훈(60기 4중대) : 일정에서 유격 체조가 비중이 크진 않았다. 정규 일정으로 편성되었던 체조는 약식으로 진행되었던 느낌을 받았다. 유격 훈련을 받는 순간이 매우 덥고 습한 걸 생각해보면 날씨 덕에 정신 차리기도 바빴던 것 같다. 오히려 훈련 진행 중 쉬는 시간에 열 보존을 위해 진행했던 유격 체조가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유격 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프로그램과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김순수(60기 1중대) : 마지막 일정에 있던 도피 및 탈출이다. 잠을 지지 못하고 제대를 맞춰 걷다 보니 육체적 피로가 심했다. 하지만 행군 코스였던 '407고지'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이 아주 예뻐서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상훈(60기 4중대) : 도피 및 탈출이 가장 힘들었다. 왜냐하면, 지도상 편히 갈 수 있는 길도 둘러서 산 하나를 타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고 모든 일정 중 가장 육체적 피로가 크게 다가왔다. 가장 인상 깊었던 훈련은 '하강 횡단'이었다. 레펠을 잡고 '유격 자신!'을 아주 크게 외치다 보면 시원하게 입수를 하게 되는데, 이 순간 쾌감과 함께 시원함이 아주 크게 느껴진다. 날씨가 너무 더웠기에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유격 훈련 간 텐트에서 야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은 어땠나요?

김순수(60기 1중대) : 야영이 캠핑이 아닌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텐트를 치는 순간부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땅이 기울었던 지형 탓에 공간이 좁아 새우잠을 지야 했으며, 무더운 여름이라 벌레가 많아서 더욱 불편했다.

이상훈(60기 4중대) : 경사진 산이다 보니, 훈련이 끝난 뒤 텐트로 복귀하는데 피로가 배로 느껴졌다. 내려가서 씻고 복귀할 때도 날이 더워서 금방 다시 땀이 났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이런 부가적인 상황에서도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다.

이번 유격 훈련이 앞으로 군 생활에 어떤 무용담으로 기억될 것 같나요?

김순수(60기 1중대) : 충성기초군사훈련 이후 처음 제대로 겪은 군사훈련이었다. 훈련을 진행하며 지루할 틈도 없이 바쁘게 보냈으며, 군 생활에 있어 나의 '인내심'과 '사회성'을 제대로 기르게 된 계절이었다고 기억할 것이다.

이상훈(60기 4중대) : 유격장에 도착하면 비석에 '지독하지만 아름다웠다'고 새겨져 있다. 이 문장에 격하게 공감한다. 이번 유격을 통해 나의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칼럼 I



소령(진)심 상훈
(이학처 컴퓨터과학교수)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은 국방 분야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그리고 엣지컴퓨팅 등과 같은 기술들이 전투 수행방법의 혁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군사선진국 미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국방력에 적용하여 상대국의 비대칭 전력과 지리적·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는 이른바 3차 상쇄전략으로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은 기계(컴퓨터)가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다. 기계학습을 통해 컴퓨터는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예측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컴퓨터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다. 기계는 부대가 마주한 상황을 미리 학습된 모델로 분석하고, 그 상황에 최적화된 전투력들의 조합을 지휘관에게 추천한다. 기계학습을 통한 예측 모델의 생성은 주로 전략제대와 같은 대규모 부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

을 만큼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5G를 통한 초고속 무선 데이터 공유와 '사물인터넷'을 통한 각종 장비의 상호연결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엣지 컴퓨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작전상황의 예로는 드론, 센서, 카메라, 소형 C4I 장비 등 전투원이 사용하는 장비들로 비유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전투원의 장비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한다.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데이터 원본 대신 각 부대가 학습시킨 지역모델만 공유하므로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 활용'이다. 전술적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전송 속도, 장비의 종류 등 컴퓨팅 자원이 평소보다 한정적이다. 동영상, 이미지와 같은 고용량 데이터 대신 저용량의 모델을 전송함으로써 자원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중앙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존도 또한 낮출 수 있다.

미래전 패러다임을 완성할 과학기술의 집합체 : 연합학습

그러나 연합학습은 중앙집중식 시스템에서 벗어난 분산화된 기계학습 방식이다. 다수의 하위 컴퓨터들이 정보 수집부터 기계학습까지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지역모델을 만든다. 추후 각 지역모델들은 중앙 서버에서 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모델을 형성한다. 분산화 방식에는 '엣지컴퓨팅'이 요구된다. 엣지(Edge)란 인터넷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용자 기기를 뜻한다. 따라서 엣지 컴퓨팅이란 정보의 원점에서 수집한 기기가 직접 데이터 처리까지 하는 것이다. 엣지컴퓨팅은 소형 장비도 복잡한 연산할 수 있

연합학습은 이미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의료분야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자율주행체계에 활용되고 있다.

군사작전에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첫 번째로 '실시간' 상황 판단이다. 상급부대의 도움 없이 각 부대가 자체적인 모델로 신속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다. 연합학습을 통해 생성된 모델은 각 부대가 수집한 정보로만 학습되었기 때문에 해당부대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예측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기술들 외에도 연합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방 분야에도 과학기술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까운 미래에는 연합학습이 군사작전에 꼭 필요하게 되어 미래전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칼럼 II



대위 김 홍재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교수)

2023년 1학과와 하계군사훈련이 종료되었다. 분무를 겸비하기 위해 새벽까지 중성대의 어둠을 밝히며 일 반학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군사훈련에 묵묵히 임하는 노력을 통해 사관생도의 멋과 끈기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이번 학기를 통해 정예 장교의 모습에 한층 더 다가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번 학기를 통해 진정으로 성장하였는지 자문해보자.

교육학에서는 성장을 "인간의 성품, 능력, 태도, 지력 등이 자연·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향상되고 내적으로 통합을 성취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사관생도의 성장은 생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향상을 통한 장교로서의 역량과 자질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고들 말한다. 실제로 '직무학습 경험이론'에 따르면 역량개발의 80%가 직무와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개인은 업무수행 중 겪는 다양한 경험으로 학습하고 성장한다. 이는 생도 생활의 경험이 개개인을 성장시키고 역량개발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경험이 개인을 성장시

인해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저자 Geoff Colvin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방식이라 말하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일맥상통한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성과 향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활동을 의미한다. 개인은 자신의 역량 발전과 성장을 위해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부분을 찾아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이는 고통을 수반하고 정

않는다.

안전 영역을 벗어나려는 시도의 과정은 기존의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여 집중적으로 단련하고 끊임 없는 피드백이 수반되며, 성찰과 시도를 반복한다. 그 결과 안전 영역을 넘으려는 노력과 성찰은 성과 향상이라는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연 23년도 1학기가 정예 장교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적 경험'이나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었는지 되돌아보자, 단순히 재시험에 걸리지 않고 체력검정에 통과하기 위한 반복된 연습은 아니었나 자문해보자. "이번 학기를 통해 진정 나는 성장하였는가?" 다음 학기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알찬 학기를 보내도록 성찰하며 안전 영역을 벗어나보자!

이번 학기를 통해 나는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켜주는 것은 아니다. Dewey는 모든 경험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험 그 자체가 성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경험을 질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성찰이 수반되어 차후 경험을 촉진하고 확장하게 하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개인은 성장한다고 하였다. 개인마다 경험에 수반되는 반응과 성찰의 내용은 다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도 경험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이다. 기존의 성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안전 영역'을 벗어나는 과정이다. 안전 영역 내에서의 노력은 이미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요리를 하여도 최고의 요리사가 되지 않듯이, 반사적인 연습과 무의미한 반복은 성과 향상이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주재우
(경희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국제정치학 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지정학이다. 지정학의 기본 개념은 지리에서 시작된다. 국가가 지리적으로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바라보는 세상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지리조건에 근간한 세계관에서 국가 지도자는 생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의 지정학 전략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봐야 할 자료는 지도다. 지도만 보더라도 우리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해왔고, 생존을 위해 채택한 전략의 연유를 가늠할 수 있다.

일례로, 세계는 미국의 지리적 환경과 조건을 가장 부러워한다. 주지하듯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두고 위치한 대륙 국가이다. 1776년 독립 이후 외세의 침공 우려 없이 생존해왔다. 유럽 지역 또한 수많은

강줄기와 산맥을 자연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 미국과 같이 산업과 경제가 장기간 발달할 수 있었다. 의도적인 전쟁을 제외한 유럽의 많은 국가가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일궈낼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자연지리에 근간한다.

반면, 중국 대륙은 지리적으로 사통팔달 모두 뚫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중국 서남지역에 있는 히말

조랑말로 베이징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동북지역을 향해 만들어진 역사적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의 서쪽 지역은 신장지역으로 방대한 사막지대다. 적의 침공을 자연적으로 막아주는 요소가 없다. 역으로 오늘날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출발점인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아시아, 동구, 중동 지역으

그럼 여기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를 짚어보아야 한다. 우리에게겐 오래된 통념이 존재한다. 아시아의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차라면, 해양세력이 아시아 대륙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통념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런 통념은 일본사관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용한 나라는 일본뿐이기 때문이다.

외세는 해상에서 중국의 해안지역을 직접 공격하고 점령했다. 한반도를 거치지 않았다. 반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을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오랫동안 가진 일본에게만 필수불가결한 후방지원 기지의 가치가 있었다.

오늘날 베이징에서 도쿄까지 여객기로 4시간이 걸린다. 임진왜란이나 대동화전쟁 시기에 이는 더욱더 멀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중간 지점인 한반도를 먼저 점령해야 했다. 지정학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에 대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여름에 필자가 <지리학의 죄수(Prisoners of Geography)>와 <지리학의 힘(The Power of Geography)>을 정독하는 이유다.

국제관계에서 대부분의 답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리아산맥이 자연적인 방패로 존재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를 넘어 티베트로 침략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오늘날 인도와 중국 사이에 국경분쟁이 있지만, 전쟁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히말리아산맥의 존재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역을 제외한 중국은 전반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취약한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다. 북쪽으로는 고비사막과 동북지역의 광활한 평야가 있다. 몽골, 러시아와 다른 이민족 등의 침략이 쉽게 허용됐다. 이들이 몽골의

로 뻗어 나가는데 지리적 장애가 없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외세의 침공에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들이 해상에서부터 중국을 침공했기 때문이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보듯 해상 침공에 중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아니, 해상에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졌다. 오늘날 중국이 해안과 근해 방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역사적 이유다.

저명인사 칼럼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윤정부는 강제동원문제에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여 일본 측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왔다.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3월 한일정상회담, 4월 한미정상회담, 5월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에 한일, 한미일정상회담으로 한국 외교는 전략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3월 한일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일관계 개선의 의의는 첫째,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기시다 총리도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된 데에 있다. 한일 정상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의기투합함으로써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둘째, 한일 셔틀외교를

시작으로 지난 시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한국 외교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국 외교의 걸림돌이었다. 최근 10여 년간 한일 양국이 충돌하던 시기에 세계정세는 격변했다. 미중전략경쟁의 심화, 에너지 정책의 변환,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로 인해 한일 양국은 같은 외교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한일, 한미, 앞으로 G7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서 한일 양국의 윈윈의 관계로 정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 한일 양국이 실감하고 있음에도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앞으로도 한일관계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과거사 문제는 한일 정치권이 반일(혐한)을 부추기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일협력을 소다자 협력으로 발전시켜 국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신중한 외교의 스탠스는 필요하다. 이점에서 윤정부는 가치외교를 명확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소통에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치의 문제가 아닌 한중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협력부분에 대해 더욱더 속도를 높이고,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의 기후협력, 에너지협력,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일협력이 안보, 무역-투자 분야의 협력이었다면 미래협력은 공급망 협력, 기후협력, 에너지협력, 첨단기술협력, 그리고 한일이 처해있는 공동위협에 대한 협력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과 앞으로의 방향

역할을 함으로써 전략외교는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5월 한일정상회담이후 이어지는 G7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G7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가치 기반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G7정상회의에 한국이 참가한 의의는 주요 평화안보 문제에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공급망 위기 속에서 경제안보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한일관계가 감정대립의 악순환에

한국외교가 전략외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관계에서 한일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대일 자세도 변화되어야 한다.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감정을 이성의 시대로 바꿀때도 되었다. 일본(한국)이라면 무조건 반대(비판)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미래는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를 지향하는 협력이 확대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는 관리하며, 이익은 확대시켜야 하며, 전략은 공유하여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여 동북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2023트렌드노트

환금성의 시대, 자산이 되는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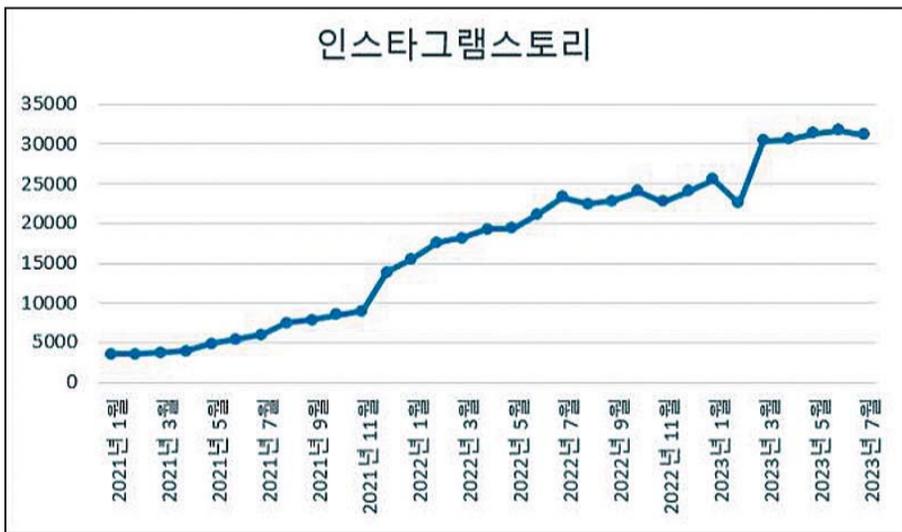
최재연

바이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우리는 일상 기록 시대에 살고 있다. <2022 트렌드 노트>에서 우리는 일상 기록의 증대와 그 속에서 느끼는 연대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를 기점으로 기록은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고, 기록의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 하나의 대중적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일상의 소소한 기록은 블로그와 같은 텍스트 기반 매체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지난 3년여간 꾸준히 언급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 인스타그램 피드가 특별한 순간에 찍은 가장 완벽한 인생샷을 박제하는 것이라면,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일상, 학교, 운동 등 가벼운 일상을 있는 그대로 올리고 24시간 후에 사라지게 만든다. 박제되지 않고 휘발되는 만큼 나의 솔직한 일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24시간 후에는 나에게만 저장되어 나만의 일기장이 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월별 언급 추이]



출처 :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트위터+커뮤니티+인스타그램, 2021.01.01.~2023.07.31.

이제 일상 기록은 대중화를 넘어 '아카이브화'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기록과 아카이브의 차이는 '나'를 위한 것인지 '타자'를 위한 것인지다. 아카이브는 남들에게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별 기준이 필요하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정체성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 아카이빙은 내 기록에 라벨을 붙여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휘발된 기록을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아카이빙 할 수 있

다. 스토리들을 엮어서 만드는 하이라이트 기능 덕분이다. 말 그대로 일상적인 나의 기록들을 내가 만든 기준에 따라 아카이빙 하여 피드 형태로 게시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영감을 주는 게시물을 모아두기도 한다. 나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보여지는 하나의 폴더이자 내 정체성의 축약체로 기능한다.

“제가 인스에 영상을 또 올리는 이유는 하이라이트에 아카이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렇거든요...”

디지털 환경은 아카이브화를 한층 쉽게 해준다. 예를 들어, 취준생 유튜버 '새니'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 기자 취업 준비 브이로그를 찍어왔고, 마침내 기자가 되었다. 그가 처음 브리핑한 뉴스 클립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오랜 노력 끝에 결국 꿈을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



출처 : 인스타그램 @instagram

이뤘던 그에게 보내는 칭찬과 응원이 가득하다. 이렇게 오랜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결국 이뤄낸 성취를 타인과 공유할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는 가치가 생긴다.

“취준생 아니지만 취업하기 전 올고 웃던 과정, 그리고 첫 출근 과정까지 봐서 그런지 몽클하네요”

아카이브가 자신의 정체성을 기록한 과정의 결과물이자 그 자체로 퍼스널 브

[유튜버 새니 동영상 썸네일]



출처 : 유튜브 채널 새니SEN @lightoftheworldseni

랜딩 도구가 된 셈이다.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은 자신의 가치관과 성장 노력, 자신만의 이야기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아카이브'다.

가치 있는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더라도 혼자만 알고 있다면 자산화로 이어질 수 없다. 아카이브의 자산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브가 공유되고 거래가 성사된다. 오늘날 개인 간 거래에서 시세 기준을 공정하게 정해주는 것이 플랫폼이다. 리셀 플랫폼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는 나이키 조던 5 시리즈를 사기 위해 사람들은 '솔드아웃'이나 '크림' 같은 리셀 플랫폼을 찾는다. 예전에는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고 메시지로 구매 희망자와 연락한 후 직접 만나 흥정을 하곤 했다. 판매자와 구매자 둘만이 폐쇄적으로 거래를 하는 터라 같은 제품을 다른 사람들은 얼마에 샀는지 알기 어려웠으며, 판매자 입장에서 걱정가를 책정하기 애매했다. 하지만 지금의 리셀 플랫폼은 주식 거래창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최근까지 얼마에 거래되었으며, 수요공급에 따라 지금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에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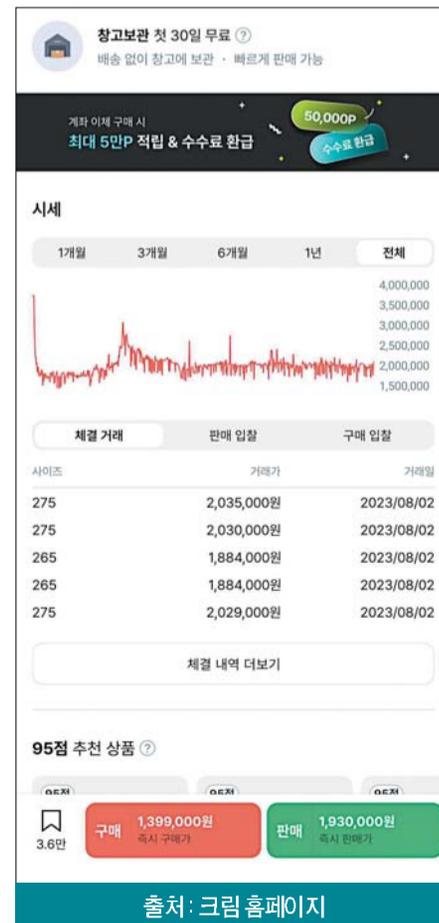
유행하는 제품에서부터 소소한 자신의 기록물까지 아카이브는 자산가치로 변화

하고 있다. 그야말로 무엇이든 돈이 될 수 있는 환금성(換金性)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어떤 플랫폼에서든 경제 체제를 찾고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 당장은 큰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이것이 언젠가 수익을 낼 가능

성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아카이브에 자산가치가 생기는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다. 몇천 원짜리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몇만 원이 되기도 하고, 10만 원 안팎의 운동화가 몇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기존에는 가치를 매기기 어려웠던 '추억'이나 '최초' 등의 추상적인 가치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Z세대가 본질을 향유하는 방식 중 하나인 것은 아닐까? 즉, 모든 것을 자산가치로 환원하려는 행태는 가치에 정당한 값을 매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아카이브의 환금성은 돈을 벌기 위한 경제체제일 뿐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크림 홈페이지 내 나이키 제품의 시세 그래프]



출처 : 크림 홈페이지

소득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최저임금제

특징과 기능, 그리고 문제점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단원으로, 생산의 3요소가 있다. 노동, 토지, 자본이 그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생산에 참여한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된다. 노동의 몫을 임금(wage), 자본의 몫을 이자(Interest), 그리고 토지나 건물의 몫을 지대(Rent)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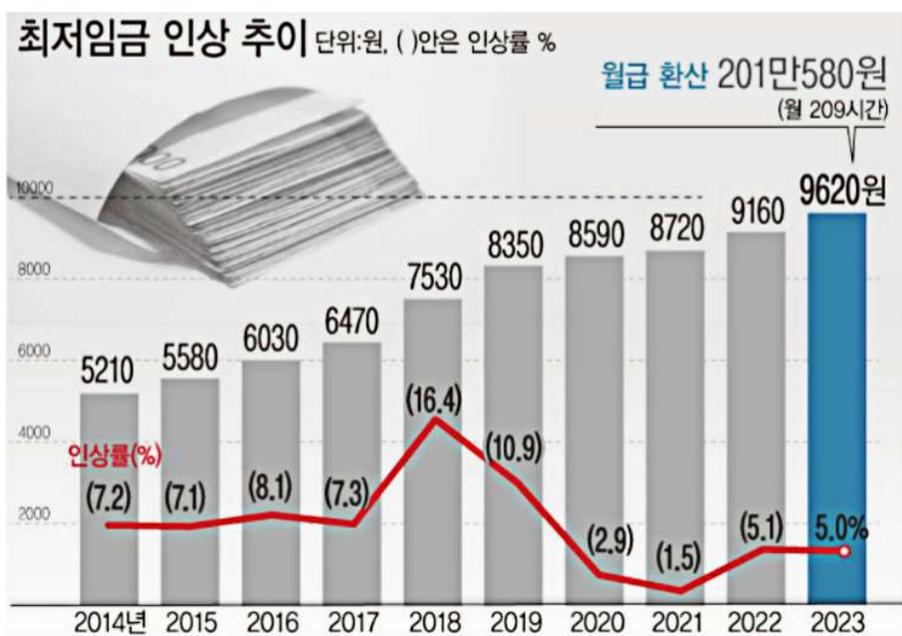


이중 일반 국민이 보편적으로 익숙하고 접하기 쉬운 것은 임금일 것이다. 임금의 사전적 정의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도 비슷한 문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이러한 임금이라는 소득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소비 행위뿐 아니라 생애 전반적인 지출계획을 세운다. 시장경제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는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임금은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을 시행한다.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제이다.

최저임금제란?

2024년의 최저임금이 9,860원(2023년 대비 2.5% 인상)으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봤을 것이다. 매년 7월~8월이 되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쟁으로 시끄러워진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사업주의 지불 능력, 그리고 소득수준의 양극화 정도 등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생산성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항상 난항을 겪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이거나 정책적 요소도 개입될 수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5년 시간당 5,580원에 불과하던 최

저임금이 2023년 현재 9,620원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보장된 소득이 늘어나고 가용 가능한 표면적 소득도 같이 늘어나기에 단기적으로는 삶의 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제 구성원이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과도한 최저임금제의 허와 실을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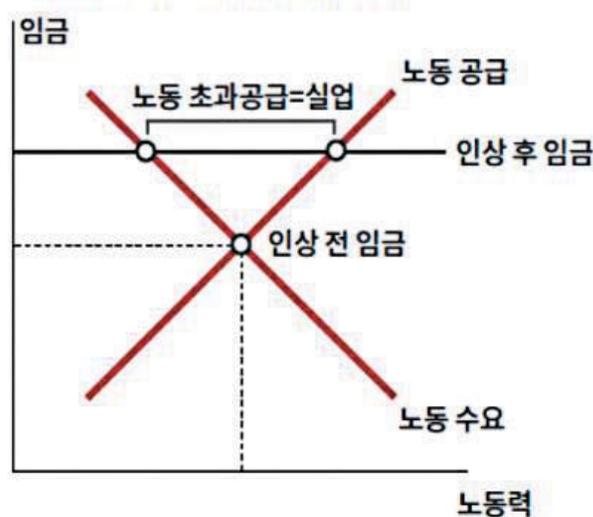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노동 시장도 결국 시장경제에 맞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균형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점에서 최소한의 의식주가 가능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의 개입이 일어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통해 임금을 인상한다. 물론,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수요자인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인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노동의 초과 공급이다. 즉,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실업뿐만 아니라 물가의 상승으로도 나타난다.

원가관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물건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서민 자영업자의 수가 많은 만큼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을 주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가격 규제로 인한 경제문제의 조율은 장단점이 모두 있는 양날의 검이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지만, 실업 문제나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을 통한 폐업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려되는 중이다.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가구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하게

최저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이 국가 내의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도약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해야 하는 시기일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최소한의 실질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세금의 환급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 또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해마다 최저임금분제로 사회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제 참여자들의 이해와 공감의 필요한 시점이다. 적절한 기준을 통한 임금의 결정과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의 시행만이 갈등의 해결책이다. 지금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



특수전학교 방문 및 생도 공수훈련 위문

총동문회는 8월 2일, 연경수 장군(28기)이 지휘하는 특수전학교를 방문하여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전학교는 공수훈련과 각종 특수작전을 실시하는 우리 군의 최고 정예기관이자 핵심 교육기관으로, 총동문회는 매년 공수훈련이 진행되는 훈련장을 찾아 생도들을 위해 위문하며 응원하고 있다.

총동문회장은 먼저 연경수 장군과 특수전학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어 훈련장으로 이동해 생도들이 지치지 않고 훈련할 수 있도록 햄버거와 음료수를 제공하였으며, 생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했다. 연경수 장군은 “우리 군 최정예 특수작전 요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생도들이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매년 특수전학교를 방문하는 총동문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생도들이 가장 힘들 때 늘 그들과 함께하며 응원할 것이다.

참석 : 박주왕(총동문회장), 장인수(동기회장), 원강희(홍보위원), 서정열(모교발전협력위원장), 이진성(안보연구소장), 신용국(홍보위원), 한경수(사무총장)
3사 총동문회



21기 황병열 동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위원장 추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7월 7일 창립 총회를 통해 황병열(21기) 동문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특별자치도로 하여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자 입법 및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순수 민간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원, 조수진, 장예찬 국회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과 경제, 언론, 사회 등 각 분야의 리더들이 다수 참석하여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였으며, 21기 동기회를 중심으로 많은 동문들도 참석하여 황병열 동문을 응원하였다. 총동문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모교를 빛내는 동문들을 찾아 응원하고 홍보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3사 총동문회



8기동사단 방문

총동문회는 7월 27일, 박성훈 장군(29기)이 지휘하는 8기동사단을 방문하여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8기동사단은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정예 기동사단으로 박성훈 장군이 지난 4월부터 지휘하고 있다. 총동문회장은 최정예부대를 지휘하는 박성훈 장군의 노고에 5만 동문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가와 군, 그리고 동문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박성훈 장군은 “총동문회 방문에 감사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사단 전우들과 함께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참석 : 박주왕(총동문회장), 이철성(3사모 회장), 황보근(상임고문), 배후섭(총괄기획위원장), 원강희(홍보위원), 한경수(사무총장)
3사 총동문회



4기 임관 52주년 기념행사

지난 7월 14일, 4기 동기회(사성회)는 임관 52주년 기념행사를 공군호텔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4기는 1971년 7월 16일 1,736명이 임관한, 동문 기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임관한 기수이다.

이날 행사는 이영식 동문의 자랑스러운 사성인상 시상을 시작으로 애국애족 동기상, 공로상 등의 시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동기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지랑도 병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사 총동문회

동문(同門)의 소리

행복상점



중위 홍준표(3사56기) JSA경비대대 부중대장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보험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다. 여러 나라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직장 내 인간관계였다고 한다. 필자는 2년 동안 두 번의 소대장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소대원들을 만났다. 여러 소대원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인간관계였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뉘는 위계질서가 있는 공간에서 좋은 상사는 최고의 행복 보험이라고 한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친밀한 사람이 있는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또한, 우리가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누군가의 행복 보험이 되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자율성'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일하는 방식에 자유를 느끼는가를 말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자. 좋아하는 가수 윤편편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 "원하는 길을 걸음에 감사를 느끼는 날이 많아질수록 더 빛나야 하는 당신께 고마움을 느낄 뿐아." 정말 감사하게도 바랐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고마움보다 고통이 더 클 때도 있다. 하루 중 내게 주어지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여윌 시간이 넘을 때도 있다. 주어진 상황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기를 쓰며 주어진 상황에서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감사한 것들에 집중하곤 한다.

세 번째는 '의미와 목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한다. 소대장으로서 목표는 소대원들이 부대에서 함께한 군생활을 통해 사회로 돌아갈 때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나은 소대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마찰요소를 만났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해온 이들이 나의 행동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자그마한 포용 그릇을 조금씩 조금씩 넓혔고, 사람에 따라 다가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마지막은 '재미있는 일'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모임 안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소대장의 권한이 크진 않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권한 밖의 일 외에는 할 수 있었다. 우리 소대만의 룰을 세우고 잘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벌을 정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이 더 옳고 좋은지를 기준으로 규칙도 수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며 할 수 있는 선에서 재미를 추구하며 소대장을 보냈다.

"소대장님은 팬찮으십니까?" 훈련을 하거나 작전지에서 근무를 서다 보면 소대원들이 힘들지 않은지, 팬찮은지, 만족하고 있는지를 필자에게 묻곤 한다. 그 말들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나에게 행복한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나 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 궁금해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준다면 그 랫단 사실만으로도 행복감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과 함께 서로의 행복에 대해 묻고 답하며 행복상점에 가보면 어떨까?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 행복을 파는 상점이 있다면 필자는 아마 행복을 미리 사두고 행복하지 않은 날에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단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상품을 대신할 방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 강의에서 '행복의 4대 보험'이란 표현이 나온다. 마치 보험처럼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발전재단 소식

학교발전 우수기여자 및 단체 현황

1억원 이상 한만우(3기), 류성열(9기), 최영돈(10기), 대한불교조계종 은하사, 국민은행

5천만원 이상 이양수(1기), 두림아스카와(주)

1천만원 이상 (기부총액, 단위만원)

특별기부자 및 단체
故김대중 대통령(1,000), 故김을관 전교수부장 육사137(1,000),
최재선 일곡문화재단 이사장(1,000), 농협은행(영천)(3,850),
(주)대저건설(2,500), (주)대호브라이노(1,500),
(주)IG빅스원(1,000), (주)심양회화(1,000), (주)삼상탈레스(1,000),
(주)포스코스틸리온(1,000), (주)군지원센터(2,000),
군외39기(1,774), 군외40기(1,300), 학부51기/여군53기(1,026),
학부52기(1,068), 학부54기(1,376), 학부/여군55기(1,700),

졸업 / 재학생 부모
오순보(17기) 모(1,000), 조운석(40기) 부(1,000) 추경호(40기) 부(1,100),
이점중(46기) 부(1,600), 황점삼(46기) 부(1,000) 김기영(47기) 부(3,000),
손수택(48기) 부(1,000), 서중태(48기) 부(1,000) 김대섭(49기) 부(1,000),
이문중(51기) 부(1,000), 안순봉(51기) 모(1,200) 권정희(51기) 모(2,000),
517학부모회(1,200), 정세웅(52기) 부(1,291), 최원희(53기) 부(1,100),
이응석(54기) 부(1,000), 한순옥(55기) 모(2,600), 정희숙(56기) 모(1,410),
홍보순(58기) 부(2,000) 김숙자(60기) 모(1,000)

졸업생
남훈조(1기)(1,499), 박재화(1기)(2,301), 박형배(2기)(1,172),
송영범(3기)(1,000), 김진욱(4기)(2,550), 신상태(6기)(3,150),
김현기(9기)(1,253), 최병학(9기)(1,350), 정원조(10기)(1,111),
정식(11기)(1,000), 성수환(14기)(1,000), 김철수(15기)(1,000),
신영식(17기)(1,000), 진기상(18기)(1,124), 편철권(20기)(2,700),
신철수(21기)(1,316), 장철석(21기)(1,100), 김영덕(23기)(1,031),
김지영(24기)(1,018), 전태환(27기)(1,400)

500만원 이상 (기부총액, 단위만원)

특별기부자 및 단체
린스튜디오(980), 대구은행(500), 한승훈 로터리3630지구총대(500),
해룡의집스낵(500), 김충기(학부287)(500), 학부53기/여군54기(886),
학부/여군56기(656)

졸업 / 재학생 부모
박현태(39기) 부(605), 권정섭(41기) 부(500), 조병국(42기) 부(500),
박수현(43기) 모(540), 한상진(43기) 부(500), 윤종옥(45기) 모(500),
조경해(45기) 모(925), 김승호(46기) 부(616), 이성우(46기) 부(700),
임민택(47기) 부(500), 윤호균(47기) 부(500), 사인철(48기) 부(500),
오시목(48기) 부(600), 이정윤(48기) 부(500), 박동문(51기) 부(560),
박명수(50기) 부(500), 박정관(50기) 부(650), 박재석(51기) 부(536),
이선화(52기) 모(560), 김환진(53기) 부(500), 송영희(53기) 모(500),
황경부(53기) 부(510), 김익열(54기) 부(500), 변문실(54기) 부(500),
안승규(54기) 부(500), 최경천(54기) 조부(500), 공무원(55기) 조부(500),
리은정(55기) 모(500), 박홍식(56기) 부(500), 한태희(56기) 부(500),
김미령(57기) 모(500), 황윤화(60기) 모(500)

졸업생
이기권(1기)(563), 김영일(2기)(554), 윤경혁(2기)(600),
김연석(3기)(600), 신장균(5기)(510), 권영호(9기)(535),
송영진(10기)(530), 정경조(11기)(630), 박두정(13기)(500),
이순진(14기)(980), 김성언(15기)(548), 정태환(15기)(500),
이용균(18기)(500), 금융백(18기)(642), 김주식(19기)(838),
이창효(19기)(648), 서정열(20기)(516), 강민식(24기)(518),
류병수(24기)(510), 장광선(25기)(526), 강봉중(29기)(500),
김홍식(34기)(507), 이호연(40기)(808)

300만원 이상
학교관련 특별기부자(단체)
이근양(2代) 학교장, 육사#3, 이희범(前3사교수, 육사#41),
군의41기, 기행#143/항공#08-5

졸업 / 재학생 부모
윤종택(38기) 부, 김중국(41기) 부, 김태철(44기) 부, 주성호(46기) 부,
유재성(47기) 부, 유종택(47기) 부, 윤종덕(47기) 부, 장진태(48기) 부,
한드찬(49기) 부, 김중태(50기) 부, 양충훈(51기) 부, 이승규(51기) 부,
이용숙(51기) 모, 정영자(51기) 모, 안병호(52기) 부, 이영미(52기) 모,
정은호(52기) 부, 정정희(52기) 모, 김상희(53기) 부, 김장빈(53기) 부,
류미란(53기) 모, 우기동(53기) 부, 이현정(53기) 모, 장태일(53기) 부,
한상록(53기) 부, 전오순(54기) 부, 조한일(54기) 부, 최동희(54기) 부,
김지현(56기) 모, 신현진(56기) 부, 조재훈(56기) 부, 양기석(57기) 부,
지마리아(57기) 모, 박종현(58기) 부, 허강우(58기) 부

졸업생
양원모(27기), 맹진호(47기), 고원우(57기), 김일기(57기), 이창복(57기),
장정근(57기), 문성목(13기), 권순열(147기), 이용진(147기), 허병욱(147기),
원홍규(167기), 윤영식(167기), 황병태(167기), 김진호(177기), 박종진(177기),
김준호(197기), 이종형(197기), 서진호(207기), 황인권(207기), 김진민(217기),
박철규(227기), 천병규(227기), 오승욱(237기), 이윤채(237기), 허강수(237기),
권금택(247기), 김장민(247기), 남용규(247기), 전희준(257기), 고창준(267기),
김영선(267기), 김호복(277기), 원희문(277기), 권관덕(327기), 김현규(337기),
이무이(347기), 박병준(357기), 한종훈(357기), 안경우(367기), 김양훈(377기),
송용섭(377기), 이원형(377기), 김영우(407기), 김석진(417기), 전종상(417기),
인석환(447기), 강승용(467기), 이신호(467기), 정종택(467기), 김희승(477기),
이종민(477기), 이태영(477기), 황민주(477기), 장재원(487기), 윤희용(487기),
권대선(497기), 최인석(497기), 27기 항몽동기, 대구사사동문회

100만원 이상
학교관련 단체
3사산우회, 3사8기 - 10기 대령전역식 참가자 3사교 동문가족,
학교교전환근부일동, 생도여단지후부생도, 7항144/항몽09-6기,
7항145/항몽11-1/기무35, 전문사관 11기, 군중6기 법무75기,
법무76기, 특수8기, 9기, 10기 간부사관14기, 15기, 17기

前·現軍인사 및 간부
육사
기도현, 김형보, 김대영, 김정현, 김진영, 김충배, 김판규, 두석주,
문은석, 박기홍, 박유진, 박장규, 박종달, 변용성, 송영근, 신대진,
신상범, 여운태, 이의성, 이용수, 이귀현, 이주실, 이종관, 정학진,
정현기, 조상근, 최원규, 허남규, 황대일, 홍희중
학사
고영기, 유제영, 이월형, 이준수, 이호형, 조홍래, 최재호, 임도현,
임채훈, 손성용
학군
강호택, 구희곤, 박균열, 송경재, 이정훈, 한덕수, 황태열, 전용우
(법무), 이성재(법무), 전제현(중합), 신용백(군중), 차성복(여군)
군무원: 류재운
부사관: 이무열(이대영)대영장학회 대표

우인
사원외원컴 대표, 조재욱, 한양희, 김세영, 김중학(주세일)여행사,
심영실(상주시향군인원), 박해원(선한목자교회 장로),
임중범(3사교어학병) <16면에 계속>

100만원 이상 졸업 / 재학생도 부모

- ▶ 36기 손남오
- ▶ 37기 김정민 김석용 김영민 김천식 남남식 박향선 안민수
- ▶ 38기 김인복 김정민 오영근 우해성 위인환 유석재 이원호 정교선 조남이
- ▶ 39기 강구한 고영규 김영용 인봉식 양철석 오갑석 이원규 정숙자 정승용 차용수 차한성
- ▶ 40기 김기철 김시만 김석규 김재복 김정문 김진일 박영현 배무섭 윤봉현 이경희 이복수 이준량 이정주 이왕원 정순행 정연만 조순남 최대성 최정권 한성남
- ▶ 41기 김신덕 권태삼 김기선 김복남 김상능 김원하 김임식 김중국 김창기 김태경 문정식 박금수 변기열 석광기 오두영 이재형 이종원 정원식 정현기 정현웅 주병기 최명희
- ▶ 42기 김경근 김민식 김상호 김우영 박수명 박정순 박종순 배기철 백용재 송기연 유필중 이덕근 이용학 이주순 이창수 이호문 정억수 조재석 최병영 허성희
- ▶ 43기 김경하 김대선 명중식 문근선 문서기 박성중 사영찬 설정수 신용화 인태근 양영선 오인근 이명훈 장현철 전영서 전찬영 정수호 하동술
- ▶ 44기 김길수 김봉수 김옥분 신동식 양원석 오혁근 이성희 최연희 최운용
- ▶ 45기 김기진 김정숙 김철환 박세윤 박수옥 박치관 서만환 시종성 신홍근 양철웅 윤상락 이경희 이만우 이명자 이명훈 이봉재 이정호 최강호
- ▶ 46기 가세현 박수주 박민식 신경자 안금희 이창석 장석수 정영길 정태근 정택영 홍근식 홍중선 황보경
- ▶ 47기 김각중 김명재 김영호 김은배 김종열 민덕기 서정남 석영찬 양성일 엄호용 유준근 윤선동 이광덕 임춘만 전창우 정이선 정이애 조귀영 최광은 최현동 한도근
- ▶ 48기 김남석 김영복 김용범 김청근 남옥순 문용식 박진좌 심대수 안재섭 원찬희 유성중 이재성 주규일 한성구
- ▶ 49기 권기호 김두석 김세홍 김연옥 김연천 남상문 박노문 박정규 서운선 인종현 유상환 윤재중 이영수 이재성 장군 장순일 정경석 조선기 주동철 진성화 최경일 표환산 한상기 홍남주
- ▶ 50기 강연경 강운제 공정미 광동주 권오본 김교찬 김두석 김삼성 김순조 김영식 김재학 김현중 나신하 박근서 박동서 박준기 배달원 배영배 서용삼 서정세 성동모 신인호 신현성 심종섭 안원근 양규창 안인선 유근윤 양호 이상모 임규택 전희남 정영만 최중국 허상선
- ▶ 51기 강정열 김경석 김명희 김일수 김중환 김진규 박영준 박영희 박윤희 박종원 박중환 송병철 손주오 신오용 이기원 이상화 이은원 정재관 최이섭 홍원표
- ▶ 52기 강천성 김경태 김순식 박다순 손창섭 인희선 어윤담 우성식 위익환 윤권중 윤준영 윤희순 이정석 장창호 전대환 전대영 장병관 정병래 최광 최영길 표대천 한재덕
- ▶ 53기 강동호 강원태 계석철 권혁신 김강진 김기욱 김동진 김상집 김상희 김선식 김영갑 노시철 박기문 박두인 박운철 박일심 박진영 박희오 손리라 신영숙 안갑기 안중수 오교주 오미정 오지미 유병우 윤미리 윤형준 이강수 이석준 이영선 이우철 임장석 조정숙 주순린 지한옥 천은희 최동희 표미정 허숙현
- ▶ 54기 강성봉 고홍식 김인영 김태태 김태욱 김희숙 박현욱 손형숙 심재향 양동주 오정현 유유근 유재천 윤명남 이기성 이선미 임운혁 정승욱 정용현 정의숙 주옥자 한성희 홍성은
- ▶ 55기 김정희 고창희 김기순 김대업 김동환 김명월 김미순 김봉주 김상규 김지우 남영달 박철 사원수 양일권 유현구 윤연희 오상욱 이경현 이상용 이승범 이은재 이천범 전근화 정수태 정영섭 정원섭 정철근 주영숙 차영숙 천동호
- ▶ 56기 김동환 김영기 박준호 정민호 신현진 윤재홍 황태구
- ▶ 57기 기연자 강석근 김낙주 김민규 김수연 김진진 박성하 안윤희 이계국 이동희 임상찬 조정규 전영우
- ▶ 58기 광상훈 강문찬 김홍수 김용정 김중용 문현아 심순권 염기성 이정기 이기남 정원일 조인호 지상현 진경화
- ▶ 59기 김병원 권동자 김민규 김선옥 박순정 배래란 박주연 손병천 정원준 조영희 지은주 이내규 홍성태 홍유경
- ▶ 60기 김경준 김병윤 손학권 송운환 이경미 정영환 정재문 탁점숙 황성미

졸업생

- ▶ 1기 김근식 김기한 김용하 민석식 박상윤 박주열 이진홍 임관택 조운 최익환
- ▶ 2기 박종욱 변원서 이종근 정용섭 하선영
- ▶ 3기 김재호 김태성 박진근 유근중 장영진 한교출 함명달
- ▶ 4기 이재평 이호문 임성기 최용주 최해필
- ▶ 5기 고석희 김영찬 김윤석 김전태 김중욱 노영섭 박재신 손병만 송호운 신호철 오준섭 이영재 이인재 장성근 장세화 한재남 황전기
- ▶ 6기 김선태 김종태 안승현 우영대 최교찬 최양환 표대근
- ▶ 7기 권신탄 김윤규 송호명 정두근 지창성
- ▶ 8기 김일생 김형기 노창남 박진규 문범식 박광서 임경상 조성범
- ▶ 9기 김정식 김희숙 손시학 송화일 신현정 윤옥현 윤지환 이철성 이희호 ▶ 10기 권동환 박상규 오정석
- ▶ 11기 김성학 신사순 ▶ 12기 김인동 정인하
- ▶ 13기 권태오 기찬수 김모일 김영철 김윤규 김호중 최경남
- ▶ 14기 김진우 김길영 박명희 신동만 이종학 장성욱 한동주
- ▶ 15기 김구한 박병환 유경조 이문선 이은재 이영호 이재홍 조서환
- ▶ 16기 강우철 김일현 김진태 이상웅 민용일 송동환 원홍규 유현순 이명현 이종구(7급) 이종우(이종우) 이태섭 장형석
- ▶ 17기 박봉석 신석산 이등근 이승도 조갑인
- ▶ 18기 강영원 고재근 구연덕 김종태 노희태 변운용 양동천 양희정 이병렬 조명래

- ▶ 19기 김익수 박건 박준홍 박희선 손지영 이경희 이희균 임영갑 최창규 홍성식 황영태
- ▶ 20기 김민호 박민수 박준수 박희근 상영기 소요영 이태인 정종관
- ▶ 21기 김창희 김문중 임상호 이점문
- ▶ 22기 금융필 권태정 김만수 배호경 원용정 이진성 이형우 조태환 홍상덕
- ▶ 23기 김현수 김무길 김창수 김태일 배요식 우지흥 윤대광 이진호 인동성 장승열 장철재 조규안 한상훈
- ▶ 24기 김창민 김현권 광종만 권오봉 김경봉 김도협 김성배 김오중 김집석 김중훈 모경원 방성대 송기룡 안연준 이등근 이문희 정규모 정정희 홍성희
- ▶ 25기 김남용 김민정 김현동 김희식 문봉성 손영기 이은전 전창호 조재희 허정석 홍은표
- ▶ 26기 김대식 김인환 박용욱 박용우 신충인 신태영 이덕우 이원주 이태인 임우영 장동빈 홍순범
- ▶ 27기 김관수 김호복 나현민 박운성 인병욱 양동주 원희문 이창훈 이희순
- ▶ 28기 권양철 권재달 김창현 박용섭 백종국 서청수 윤석찬 윤해진 진형기
- ▶ 29기 김성진 김용욱 박성훈 박지철 박태용 송병인 오영석 이상일 이상태 이규익 임규기 임성호 최영태 최선석 최중국 현대식
- ▶ 30기 김동혁 김중권 이진 임상달 주경호 함민호
- ▶ 31기 권동호 김민식 김영태 김희엽 배동철 영환수 이재춘 정동진 조병철
- ▶ 32기 김용태 김희용 사민우 송진수 임정제 조원상
- ▶ 33기 김민식 김문상 김성선 김성근 김성수 남석진 노일 인영일 인준영 윤홍일 이정훈 이정표 조성호 조우철 조재봉 최연희
- ▶ 34기 권성진 김기수 김동기 김용규 김진규 이정근 임창훈 정영민 정창근 조수창
- ▶ 35기 박병준 박시근 송명성 이문희 임창규 장덕기 장춘삼 정병삼 정영석 정호준
- ▶ 36기 김도희 김동혁 김현 인명우 임현승 이광희 이규호 이호진 장재호 정우철 조동권 진연수
- ▶ 37기 김성봉 김남훈 김영훈 김창기 김홍근 노지철 백인성 송성봉 이재진 인홍선 옥원호 위재익 이관모 이우규 이희석 임운철 장학선 전성진 정희철 장태우 최하용 함성규
- ▶ 38기 모을하 문장민 문현성 박현수 서현호 신상윤 오덕주 오영필 위재익 유정일 이경식 이상희 이정용 정만기 정우남 정현욱 채병기 한재원 한기훈
- ▶ 39기 김병현 권영호 김인경 김의진 김지훈 박철균 송진근 송창현 심용운 이대화 이용렬 이종화 이희수 장동준 조진만 최교선 최태영 최현철
- ▶ 40기 구지윤 권오정 김대경 김백민 김형수 남광현 문수혁 박진하 송석준 유희선 임종국 정준표 조현 최창호 최창국
- ▶ 41기 박한지 손영민 손종득 임성은 정기채 최민규 최지능 한규환 한정식
- ▶ 42기 강은중 강정희 강재석 권영민 김동우 김동진 김유성 문보승 박용준 박준우 박효찬 손병현 윤희철 이기욱 이민환 이수은 이영우 이용학 이원종 임경환 전병민 정만기 정상현 조영환 차재영 홍재현
- ▶ 43기 김민식 김용태 김인중 박민영 박우선 배동직 백두산 이도훈 이상민 이용희 이준맹 이효선 최진호 허광석
- ▶ 44기 강형욱 김대은 김순식 김성남 서동준 엄태천 오두현 오승우 윤병희 이민재 이영민 이희성
- ▶ 45기 권기호 김동호 김성수 박근규 박영일 박정환 박정훈 박지훈 서석관 신우철 이인권 이진희 정재현 정진우 조다운 조성범 채희용 최충수 황승세
- ▶ 46기 강도훈 권자민 김동현 김명철 김모세 김민섭 김서원 김순기 김정렬 김정훈 김정호 김진용 김태재 김철호 김충년 김홍섭 노경남 노하 박상환 박호우 박광민 배경용 백민정 송원상 송재식 송찬욱 오건 오기리 오복만 옥세명 유종운 윤민승 윤필진 이대성 이등호 이민호 이상훈 이상철 이선구 이수원 이재호 이종빈 이진우 이진철 이해운 이태형 장경환 장동휘 장문수 정재영 정현성 정현욱 조수빈 조일상 조희희 주기철 지우택 차승우 최현도 표상열 한영인 홍인표 황순창
- ▶ 47기 강령록 강상철 강호기 구본길 가원재 김경민 김영훈 김기우 김덕래 김민준 김시문 김성 김영규 김영광 김유빈 김정환 김중재 김재우 김철호 김현진 김호준 김희수 나병호 나용현 나철우 민경민 박세환 박정일 박종원 박정형 박호성 변비민 변현우 사병렬 사상현 사영민 석지중 선우원 손승원 손진형 손호철 신부길 심현기 안준석 안영도 유병은 유승용 유승재 유이상 유영선 윤상필 윤승주 이광운 이규배 이등우 이상현 이상재 이승환 이진우 이진우 이정현 이정환 이종규 이준수 이자민 이태훈 이형식 임동선 임정현 장대근 장영록 장영일 장세영 장영철 장태영 조규태 조재현 채문석 천명우 최경구 최상민 최상수 최승재 최영훈 최재혁 최재효 최진희 최현주 최연홍 채희준 한세우
- ▶ 48기 고지민 고해용 공남기 광희동 권병진 권 웅 김동진 김보성 김용범 김용주 김용준 김우림 김중률 김사수 김진규 김진영 김태영 김현욱 김현수 김형권 김호영 김희중 문화원 박보람 박병현 박제배 배현 백민준 백민태 백희생 사신우 안병철 안용후 안정우 양태진 염찬진 오용현 유영중 유재욱 유진성 윤희웅 이경희 이경진 이경진 이병영 이승현 이용진 이재환 이정근 이정원 이종선 이태희 이현진 장대규 장재우 조지훈 차정훈 최희준 한세우
- ▶ 49기 김민규 김성진 고상찬 구태훈 김건호 김교갑 김권웅 김도윤 김동성 김동환 김 목 김병주 김상민 김상영 김용운 김윤모 김재현 김진규 김준우 김태경 김홍연 남기원 리호연 루수록 문상현 문영주 문지훈 민경철(통) 박신 박우현 박재정 박재현 박주광 박태일 박현수 방선일 배성찬 배희철 변재준 서희훈 송재강 신승준 안동환 안정근 오민현 오성규 오우연 우세하 우현광 유승현 유현승 윤영기 이경태 이상균 이선우 이슬기 이신우 이우진 이인택 이 일 이재형 이준 이찬구

이충민 이충호 이태규 임 별 임수소 정권익 장산 정영근 전대영 정성화 정승교 정원준 조경오 조범준 조상규 조영진 조종민 주상욱 차재성 차민상 차승열 최성현 최원익 최정민 최정호 최호식 최홍석 허동희 허영훈 한민희 한수희 황동주 황선현

- ▶ 50기 강형욱 고대식 광종환 권순조 권영훈 김보명 김새-일 김성호 남경준 남지현 노일찬 노상형 배수환 서석훈 송근형 안병기 안희재 양현현 양대용 유윤권 이광민 이도건 이등현 임희남 전찬호 정부영 정성호 정연규 정주영 조민우 조장태 조홍재 주유성 채상연 하승룡 하진
- ▶ 51기 김민수 서대범 송중주 염동현 원영선 윤준용 정정현 정일진
- ▶ 52기 강동훈 김경민 김동준 김령훈 김명운 박민수 박민철 박성준 안태양 이영민 이철홍 조용원 조현철
- ▶ 53기 강현민 김시우 김영광 박지철 박형우 심규현 윤건웅 이선우 이수훈 이용광 이원모 이종현 한강섭
- ▶ 54기 김민성 박종권 송재관 이지호 장수민 정해천 최시화
- ▶ 55기 광준영 김기섭 김범수 김성현 김형근 박사백현우 원대연 유상욱 이상재 이상진 이상환 이상훈 임민수 정구영 장인식
- ▶ 56기 이상혁 ▶ 57기 김도윤 전우준 최범규

3사관련 단체

지역단체: 양천시 3사동문화, 삼척시 3사동문화, 대전시 3사동문화, 청주시 3사동문화, 울산시 3사동문
 해외단체: 뉴욕 3사동문화 LA 3사동문화
 기수단체: 147칠우회, 25기100우대, 18기 한울림합창단 대구시 3사23기
 병과/기타: 향파시 3사동문 22사단 3사동문 합합대#27 3사동문

3사 졸업기별 기여현황(단체·개인) 2023.7.31 기준 (단위:만원)

기수	금액	기수	금액	기수	금액	기수	금액
1	1억4124	16	7021	31	3482	46	3억 6802
2	7471	17	5715	32	3257	47	3억 5726
3	1억9866	18	8169	33	7483	48	3억 5746
4	7126	19	8854	34	6181	49	3억 4359
5	8026	20	8599	35	5478	50	2억 7534
6	8107	21	6631	36	6880	51	2억 5292
7	4652	22	5668	37	1억8397	52	3억 624
8	5103	23	7626	38	1억9371	53	2억 4226
9	1억8353	24	1억803	39	2억1444	54	2억 247
10	1억2323	25	6181	40	2억2681	55	2억 1505
11	4944	26	6321	41	2억 493	56	1억 3387
12	3442	27	6494	42	2억5412	57	7214
13	5387	28	4438	43	3억 898	58	4541
14	9539	29	5663	44	2억5622		
15	6202	30	3101	45	2억5938		

2023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3. 6. 27 ~ 8. 28까지 기부현황입니다.

총 자산 92억원 범례: 해당기간기부액(총기부액), 단위: 만원

- 단체 (주포스코스탈리온 1,000만원)
- 졸업생 가족 ('23. 6. 27~8. 28기부현황)
 - 조경해(#45 황정태 모) 10(930), 안소봉(#51 박상운 모) 20(1,200), 이영미(#52 황성규 모) 3(70), 정희숙(#56 배용취 모) 10(1,410), 조재현(#56 조성진 부) 6(470), 양내식(#57 양철민 부) 10(360), 이동희(#57 박원환 모) 5(106), 지미리(#57 김태현 모) 10(305), 김한영(#58 김범수 부) 10(95), 진경희(#58 김태욱 모) 5(210)
- 재학생 부모('23. 6. 27~8. 28기부현황)

- ▶ 1학년부모
 - 김재령 6(54), 조철만 6(20), 최민 10(90)
- ▶ 3학년부모
 - 손하원 20(100), 윤희정 10(50), 장은심 20(60), 정미경 10(35), 정양수 10(50), 정지한 10(20)
- 졸업생('23. 6. 27~8. 28기부현황)
 - ▶ 1기 남훈조 10(1,494) ▶ 2기 윤영혁 10(600)
 - ▶ 3기 김태성 10(170) ▶ 4기 임성기 10(130) ▶ 5기 김일순 10(445)
 - ▶ 8기 문범식 100(100), 박광서 100(100), 박진규 50(150), 신영진 50(61), 임경상 100(100), 조성범 100(100)
 - ▶ 9기 권영호 10(54), 김현기 6(125), 최병학 10(135), 윤지환 6(213)
 - ▶ 13기 권태오 10(160), 김모일 10(165), 문성묵 20(480)
 - ▶ 14기 안호 20(2210), 이순진 20(980), 이등진 20(430)
 - ▶ 15기 박영환 10(299) ▶ 18기 금융백 6(642), 양동천 10(230)
 - ▶ 19기 이종형 6(326), 이창호 6(648)
 - ▶ 23기 윤대광 10(110) ▶ 24기 방성대 6(181) ▶ 25기 배현국 10(25)
 - ▶ 26기 고희준 10(394), 이원주 6(190)
 - ▶ 27기 김관수 6(151), 김호복 8(353)
 - ▶ 33기 노일(236), 인준영(191) ▶ 34기 권순은 10(10), 김홍식 6(507)
 - ▶ 35기 박병준 3(380), 이호순 6(82)
 - ▶ 37기 김양훈 3(309), 최하용 6(126)
 - ▶ 40기 김영우 6(316), 이호연 10(808), 하성남 5(38)
 - ▶ 41기 김석진 10(358), 전중상 10(317), 홍희현 6(52)
 - ▶ 42기 박동준 6(100) ▶ 43기 배동직 6(208) ▶ 44기 오승우 6(109)
 - ▶ 46기 이신화 6(399), 정종택 6(449) ▶ 59기 이용훈 10(85)

▶ 이번 기부자 현황은 우수기부자 특집으로 5만원 이상 기부자에 한 해 수록하니 양해 바라며, 미수록 기부자 명단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 가능합니다.

- 학교발전 기금계좌
 - 국민은행 620-01-0861-994
 - 농협은행 766-01-003094
 - 대구은행 049-05-005898
 - 우체국 900969-01-003463
- ▶ 기부자정보 변경 : 재단사무국(054)330-3180, 3182 연락요망